

전시장에 옮겨놓은 '예술가의 집'

임의진 목사 초대전

내년 1월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

그림·사진·수집·설치 작품

내일 뮤직&토크 콘서트도

자생단체 '메이홀' 관장, 시인, 여행가, 사진가. 임의진 목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많다. 담양에 정식으로 작업실 '회선재'를 마련한 화가이기도 하다.

임 목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연다.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예술가의 집(Artista Casa)-토끼, 여우, 무당벌레, 시인 화가의 동거'를 주제로 21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부제에 나오는 토끼·여우·무당벌레는 임 목사를 대변하는 동물이다. 토끼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귀를 가졌고, 지금은 멸종된 여우는 우리 전통을 상징한다. 전시작을 잘 살펴보면 여우꼬리가 살짝 보인다. 또 무당벌레는 생태계 지표곤충이자 등에 북두칠성을 짙어둔 동물로 오랫동안 그려온 소재이다.

이번 전시는 임 목사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난장(亂場)으로 꾸며 전시 공간은 크게 그림·사진·수집·설치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림은 낙서화, 신문 삽화, 담양 소재 유화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이지만 공통적으로 발랄함이 엿보인다. 삽화는 지난 2007년부터 매주 경향신문에 '임의진의 시골편지'를 게재하며 함께 실은 작품 원화를 전시한다. 낙서화는 여행 중에 메모지나 공책에 끄적인 낙서들로 여행 당시 느꼈던 감흥을 생생히 전해준다.

사진전은 지난 5~8월 4부작으로 방영된 EBS '세계대마기행 멕시코편' 촬영 당



담양 담빛창고에서 21일부터 전시를 여는 임의진 목사의 작업실 '회선재' 모습.



홍성담씨가 임의진 목사를 그린 '어깨춤'.

시 찍었던 작품을 선보인다. 10월 한달간 멕시코에 머물며 만났던 사람들, 동물, 풍경 등을 찍은 사진을 통해 임 목사가 바라본 멕시코 민낯을 만날 수 있다.

임 목사는 월드뮤직전문가답게 수많은 희귀 음반을 수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송에 나왔던 멕시코 OST를 비롯해 예곡가방, 천 가방을 모아 전시한다. 바느질을 하며 직접 만들고, 상점에서 구입한 수집품들이다.

가장 이색적인 공간은 설치작업 '예술가의 집'이다. 회선재 일부를 옮겨놓은 듯 서적, 음반, DVD, 미니어저들로 꾸민다. 임의진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만큼 작가 10명이 임 목사를 그린 초상화 작품도 전시한다. 김해성·한희원·홍성담(이상 화가), 박재동(만화가), 고근호(조각가), 공선옥(소설가), 남궁산·류연복(만화가), 고(故) 최민식·리원철(사진가) 작가가 바라본 임 목사를 만날 수 있다.

성탄절을 맞아 기념 공연도 준비했다. 22일 오후 2시 담빛창고 내 문예카페에서 임 목사와 사토 유키에(록밴드 곱장전골 보컬)이 출연하는 뮤직&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문의 061-380-34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예술제

2017년 제62회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62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음악부 지정곡

구분	지정곡(피아노 부문은 3곡중 1곡 연주)
초등부 1·2학년	1) M. Clementi Sonatine Op.36 No.3 제 1악장 2) F. Kuhlau Sonatine Op.20 No.1 제 3악장 3) F. Kuhlau Sonatine Op.55 No.3 제 1악장
초등부 3·4학년	1) W. A. Mozart Sonata K.333 제 1악장 2) J. Haydn Sonata Hob.XVI:35 제 1악장 3) F. Chopin Sonata Op.64 No.1
초등부 5·6학년	1) F. Chopin Polonaise No.14 in g#minor Op. Posth 2) W. A. Mozart Sonata K.576 제 1악장 3) L. v. Beethoven Sonata No.16 in g minor Op.31, No.1 제1악장
중등부	1) F. Liszt 3 etudes de concert S.144 III. Un Sospiro 2) L. v. Beethoven Sonata No.14 in c#minor Op.27 No.2 제 3악장 3) L. v. Beethoven Sonata Op.22 제 1악장
고등부	1) F. Liszt 12 Transcendental Etude No.8 (Wilde Jagd) 2) L. v. Beethoven Sonata No.23 in f minor Op.57 제 1악장 3) L. v. Beethoven Sonata No.7 in D Major Op.10 No.3 제 1악장
성악독창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독주)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합주)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중창·중주	자유곡 1곡
합창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자유곡 약 1부 지참, 필요시 제출 *단체: 보편대 등 필요물품 개별 준비 *2017년 제62회 대회부터 중·고등부 피아노 부문도 예선·본선이 통합되어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 개최요강(음악부문)**
 - 대회기간: 2017년 4월 19일(수) ~ 6월 24일(토)
 - 참가자격: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 구분(음악부문)
 - 1)성악독창 2)피아노 3)바이올린 4)플루트 5)클라리넷 6)관악독주
 - 7)현악독주 8)기악독주 9)중창합창 10)중주합주(관악현악기악) 11)실용음악
 - 심사: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위원은 신청 마감후에 위촉함.
 - 심사
 - 1)개인단체: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2)합창합주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3)개인단체 최고상, 합창합주제 대상: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참가신청
 - 1)기간: 2017년 4월 5일(수) ~ 4월 12일(수)
 - 2)방법: 인터넷, 우편,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접수처
 - 기타 변경사항이나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월초 게재될 광주일보 사교(하승)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체 대회요강은 3월초에 발표됩니다.
- 유의사항**
 1. 개인참가부문은 알보(樂譜)를 원칙으로 함.
 2.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3.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중 중단할 수 있음.
- 문의**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062)220-0541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

천경자 유족, 검찰 '미인도 진품' 결론에 조목조목 반박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은 20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난 자료에서 '미인도'의 원소장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이 진품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미인도'를 선물했다고 지목된 오중해 중앙정보부 대구 분실장이 그림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미인도'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천 화백의 작품 표구를 전담하다시피 한 동산방 화랑의 화선지와 액자로 표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림의 액자가 동산방에서 만든 것은 분명하나 누가 가져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당시 동산방 화랑 대표의 증언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는 압인선이 확인됐다거나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 안료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도구로 분을 뜨는 것은 동양화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석채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안료는 누구나 쓸 수 있어서 아무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명 프랑스 감정단(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검찰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펼쳤다. 뫼비우스 측은 검찰 발표와 관련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이며 임의적 자료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 연구소의 25년 이상 축적된 첨단 기술과 경험을 그렇게 쉽게 흉내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뤼미에르 측은 20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검찰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낼 예정이다. /연협뉴스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관련 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5일 한국 지역문화지역협회가 주최한 '한국 지역문화지원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5년 지역협력형사업(문화에

설지원사업) 5개 분야 전 부문 '가'등급을 획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또 올해 담양과 순천에서 추진한 '양천리 야간작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이 주최·주관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의 하나다.

한편,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이현성(진도), 임세웅(구례)씨가 각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인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문화이모작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전남문화관광재단이 3년 연속 전라권 주관처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 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